

## 20~30대 비만여성의 테일러드 재킷 착용실태 및 선호디자인

오영순<sup>†</sup>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The Actual Wearing Conditions and Preferred Design of Tailored Jackets for Obese Women in Their 20s and 30s

Youngsoon Oh<sup>†</sup> · Jeongra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6월 23일), 수정일(2010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0년 9월 10일)

####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jacket patterns which reflect designs corresponding to the body shape features and preferences of obese women in their 20s and 30s by understanding problems they may encounter in wearing a ready-made jacket by researching the reality of ready-made tailored jacket wearing and their design preferences. A survey was conducted by sampling 82 obese women (over 25kg/m<sup>2</sup> BMI) between the ages of 20 to 39. The details of the survey consists of general information, interest rate and importance rate on clothes, reality of wearing and purchasing jackets, measurement fits per each part, and preferred designs. SPSS 14.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76.8% of obese women wore their jackets less than 5 times a month. Those in the 20s wore the jackets more frequently than those in the 30s. The reasons for not wearing jackets frequently included uncomfortableness in activities and unavailability of the correct size. A total of 55% of the total preferred the fitting to be relatively smaller than the body size or tightly fitting. Although in the past, there was a tendency to wear a loose fit to cover the body shape, currently even obese body shapes avoided the loose fit as the tight fit is the trend.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rate for the measurements per each part of jackets, there was a low satisfaction rate for most of the items. For the circumference items such as waist length and chest size, people responded that they were too small and for the length of items such as the length of jacket and sleeve length, people responded that they were too long. This was because the ready-made clothes brands increase the length of items and circumference items in uniform in the same intervals when producing large sizes. Both those in the 20s and the 30s preferred a tight fit. In terms of preferred fabric, a wool/spandex mix was most popular and then cotton/spandex. This shows that they prefer those fabrics which allow an excellent activity while maintaining the exterior well. In addition, they preferred black color with no patterns because they wanted their body size to look reduced and did not want to receive any attention.

**Key words:** Obese women, Ready-made jacket, Wearing condition, Preferred designs; 비만여성, 기성복 재킷, 착용실태, 선호디자인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1906@hanmail.net

## I. 서 론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에 따르면 2008년 건강검진 수검자 3명 중 1명이 체질량지수(BMI) 25.0 이상의 비만으로 나타났고 비만율이 2006년 29.7%에서 2008년 32.8%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비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김정호, 임성권, 2006), 특히 비만여성은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정상인보다 강하므로 사회활동에 있어서 더욱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비만여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며 젊은 여성일수록 중년에 비해 유행에 더 민감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체형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복을 통한 체형의 보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만율의 증가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Plus-Size 재킷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Plus-Size 전문 브랜드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Plus-Size 의류시장의 확대로 비만여성이 의류를 선택하는 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표준화된 사이즈가 없어 업체별로 의류사이즈가 다르게 나와 본인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르는 비만여성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또, 비만여성의 체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표준체형의 신체 여러 부위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축소·확대하고 있어 재킷의 치수맞음새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정장 착용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들에게 자신의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아이템이 재킷이다. 재킷은 소재, 색감, 무늬, 디자인의 변화 등을 통해 유행과 더불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가 가능하며, 특히 비만여성에게는 재킷의 실루엣, 길이와 칼라, 소매, 포켓, 단추 등의 세부 디테일을 변화시킴으로써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비만여성의 재킷에 관한 선행연구는 체형별 재킷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김인화, 2002; 류영숙, 2002; 윤혜준, 2008; 정동림, 2002), 기존 재킷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연구(손부현 외, 2005), 재킷 패턴 보정에 관한 연구(권수에, 김인화, 2002), 여유량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에 관한 연구(손부현, 2008), 재킷 패턴의 외관과 기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김인화, 권수에, 2007)가 있는데 주로 비만율이 높은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30대가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세분화시키지 않고 전 연령층에 포함시키고 있어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20~30대 젊은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비만여성을 대상으로 기성복 재킷의 착용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젊은 비만여성이 기성복 착용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개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체형특성이 반영된 재킷 패턴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의 비만여성(BMI 25.0 이상)을 의도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09년 8월 한 달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6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128부 중 응답이 미흡한 것과 정상 또는 과체중 46부를 제외하고 최종 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강연경, 손희순(2008), 김현아(2007)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7문항, 의복 관심도 및 중요도 3문항, 재킷 착용 및 구매실태 6문항, 맞춤새 9문항, 선호디자인 7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중 연령과 신체치수에 관한 문항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 2. Plus-size 여성의 정장 재킷 선정

Plus-size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중 재킷과 관련한 의복치수 표시가 2개 이상 호칭이 있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킷은 선행연구(하희정, 2009)를 참고하여 스타일의 변

화가 거의 없고, 판매기간이 길어 일 년 내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베이직 제품인 테일러드 재킷을 선정하였다. 재킷의 세부적인 라인은 세미피트 스타일의 프린세스 라인에, 허리선 아래 20cm 내외의 재킷길이, 테일러드 칼라가 달린 원버튼 재킷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변인의 빈도를 중심으로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치로 전반적인 재킷의 착용현황과 선호도를 알아보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령에 따른 기성복 구매 및 착용실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치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0대는 응답자의 39.0%이고, 30대는 61.0%였다. 20대는 미혼이 56.3%로 기혼보다 많았고, 30대는 기혼이 74.0%로 미혼보다 많았다. 직업은 20대는 사무·관리직 34.4%, 전문직 21.9%, 주부 21.9%의 순이었고 30대는 전문직 28.0%, 주부 26.0%, 사무·관리직 18.0%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직업 종사자가 전체의 69.5%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를 Size Korea(2004) 3차원 형상 인체치수와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 목  |        | 20대       | 30대       | 전 체       |
|------|--------|-----------|-----------|-----------|
| 연 령  |        | 32( 39.0) | 50( 61.0) | 82(100.0) |
| 결혼유무 | 기 혼    | 14( 43.8) | 37( 74.0) | 51( 62.2) |
|      | 미 혼    | 18( 56.3) | 13( 26.0) | 31( 37.8) |
| 자녀유무 | 있 다    | 8( 25.0)  | 36( 72.0) | 44( 53.7) |
|      | 없 다    | 24( 75.0) | 14( 28.0) | 7( 8.5)   |
| 직 업  | 학 생    | 4( 12.5)  | 1( 2.0)   | 5( 6.1)   |
|      | 판매직    | 1( 3.1)   | 6( 12.0)  | 7( 8.5)   |
|      | 생산직    | 2( 6.3)   | 2( 4.0)   | 4( 4.9)   |
|      | 사무·관리직 | 11( 34.4) | 9( 18.0)  | 20( 24.4) |
|      | 자영업    | 0( 0.0)   | 5( 10.0)  | 5( 6.1)   |
|      | 전문직    | 7( 21.9)  | 14( 28.0) | 21( 25.6) |
|      | 주 부    | 7( 21.9)  | 13( 26.0) | 20( 24.4) |

<표 2> 조사대상자의 신체치수 비교

(단위: cm, kg)

| 항 목   | 응답자의 인체치수(n=82) |       |       |      | Size Korea 3차원 형상 인체치수(n=119) |       |       |      | t 값      |
|-------|-----------------|-------|-------|------|-------------------------------|-------|-------|------|----------|
|       | 최소값             | 최대값   | 평 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평 균   | 표준편차 |          |
| 키     | 153.0           | 177.0 | 162.4 | 4.7  | 140.4                         | 172.7 | 158.2 | 5.6  | 8.118*** |
| 몸무게   | 59.0            | 96.0  | 69.8  | 6.6  | 51.0                          | 96.0  | 68.9  | 7.1  | 1.232    |
| BMI*  | 25.0            | 33.6  | 27.0  | 2.6  | 25.0                          | 38.7  | 27.5  | 2.3  | -1.719   |
| 가슴둘레  | 90.0            | 115.0 | 98.5  | 7.7  | 90.2                          | 120.0 | 100.1 | 5.7  | -0.895   |
| 허리둘레  | 72.0            | 98.0  | 85.3  | 7.4  | 74.2                          | 105.5 | 87.6  | 6.1  | -1.469   |
| 엉덩이둘레 | 90.0            | 116.0 | 100.8 | 7.5  | 92.9                          | 118.8 | 101.8 | 4.5  | -0.604   |

\*\*\*p≤.001

BMI\*(Body Mass Index)={체중(kg)/키(cm)×키(cm)}×10<sup>4</sup>

정상 18.5~23 미만, 경도비만 23~25 미만, 중도비만 25~30 미만, 고도비만 30 이상

다. 키, 몸무게, BMI,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비교한 결과 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없었으며, 둘레항목 및 BMI는 본 조사대상자가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킷의 착용 및 구입실태

1) 착용실태

재킷의 착용횟수와 미착용이유는 <표 3>과 같다. 재킷의 착용횟수는 연령별로 .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20대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착용하는 경우가 46.9%, 한 달에 2~5회 정도 착용하는 경우가 46.9%로 전체의 93.8%가 재킷을 한 달에 5회 이하로 착용하였다. 30대는 한 달에 1회 이하 착용하는 경우가 40.0%

로 가장 많으며 2~5회 이하가 26.0%, 6~10회 정도가 5.3%의 순이었다. 그러나 30대는 한 달에 11회 이상 착용하는 경우가 5.9%로 20대에 비해 더 빈번히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재킷의 착용빈도가 더 높았다.

재킷을 빈번히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령별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활동이 불편해서 40.2%, 적합한 사이즈가 없어서 12.2%,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해서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실제 착용치수와 이상적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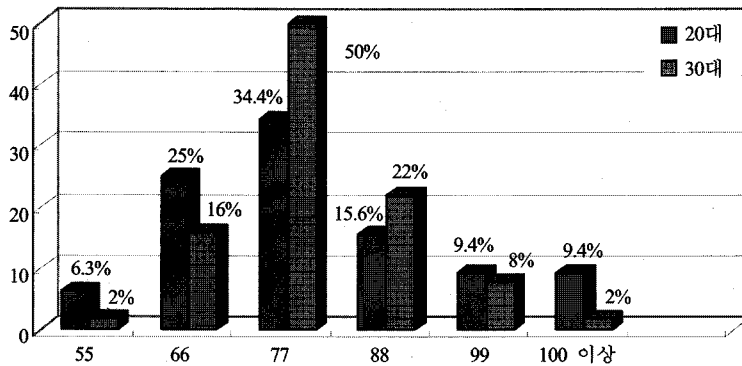
실제 착용하는 기성복 재킷의 치수는 <그림 1>과 같다. 20~30대 비만여성이 실제 착용하는 기성복 재킷의 치수는 구호칭 77사이즈(이하 77로 표시함) 43.9%,

<표 3> 연령별 재킷 착용횟수와 미착용이유

(단위: 명(%))

|       | 내 용            | 20대       | 30대       | 전 체       | $\chi^2$ |
|-------|----------------|-----------|-----------|-----------|----------|
| 착용횟수  | 한 달에 1회 이하     | 15( 46.9) | 20( 40.0) | 35( 42.7) | 9.614*   |
|       | 한 달에 2~5회 정도   | 15( 46.9) | 13( 26.0) | 28( 34.1) |          |
|       | 한 달에 6~10회 정도  | 1( 3.1)   | 8( 5.3)   | 9( 11.0)  |          |
|       | 한 달에 11~20회 정도 | 1( 3.1)   | 4( 2.6)   | 5( 6.1)   |          |
|       | 한 달에 21회 이상    | 0( 0.0)   | 5( 3.3)   | 5( 6.1)   |          |
|       | 계              | 32(100.0) | 50(100.0) | 82(100.0) |          |
| 미착용이유 |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해서  | 1( 3.7)   | 2( 4.0)   | 3( 3.7)   | 2.371    |
|       | 적합한 사이즈가 없어서   | 2( 6.3)   | 3( 6.0)   | 5( 6.1)   |          |
|       | 활동이 불편해서       | 16( 50.0) | 17( 34.0) | 33( 40.2) |          |
|       | 기 타            | 2( 6.3)   | 3( 6.0)   | 5( 6.1)   |          |
|       | 무응답            | 11( 34.4) | 25( 50.0) | 36( 43.9) |          |
|       | 계              | 32(100.0) | 50(100.0) | 82(100.0) |          |

\*p<.05



<그림 1> 연령별 재킷의 실제 착용치수

구호칭 88사이즈(이하 88로 표시함) 19.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77 34.4%, 구호칭 66사이즈(이하 66으로 표시함) 25.0%, 88 15.6%의 순이고, 30대는 77 50.0%, 88 22.0%, 66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20~30대 비만여성은 77 이상을 착용하고 있으나 20대는 31.3%가 구호칭 55사이즈(이하 55로 표시함)와 66을 착용하고 있어 20대가 30대에 비해 작은 치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김현아(2007)의 선행연구에서 20~30대 비만여성이 착용하는 정장의 사이즈를 알아본 결과 재킷의 경우 77을 입는 경우가 45.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비만체형임에도 불구하고 55와 66의 착용이 가능한 이유는 재킷은 앞여밈을 열어 착용이 가능한 의복이므로 둘레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 어느 정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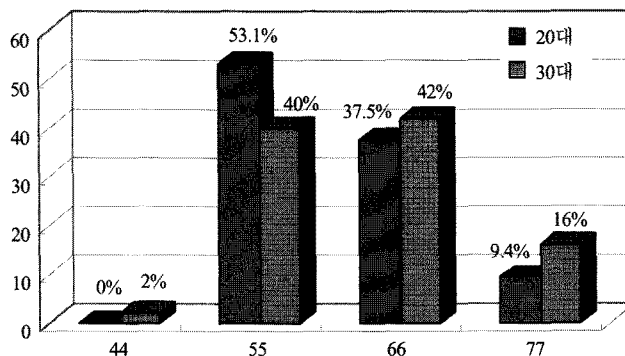
비만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치수는 <그림 2>와 같다. 연령별 이상적으로 느끼는 재킷의 치수는 20대 53.1%가 55를 30대 42%가 66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0대는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치수보다 두 호칭 작은 치수, 30대는 한 호칭 작은 치수를 이상적인 치수로 응답하였으며 또 66, 77 착용자는 55를 이상적인 치수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88 이상의 착용자는 대부분 66를 이상적인 치수로 응답하였다. 박선영(1998)의 연구에서 연령대별 BMI수준에 따른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20, 30대의 경우 비만수준에 관계없이 저체중군의 신체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것과 본 연구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만도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무조건 마른체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체형보다 약간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착용시 선호맞음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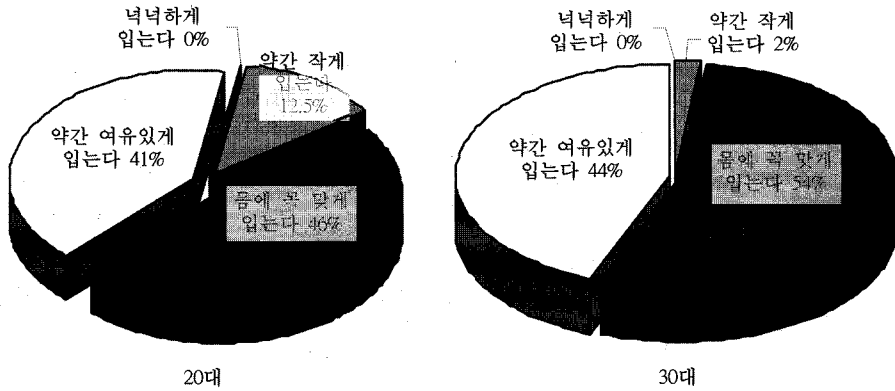
연령별 재킷 착용시 선호맞음새는 <그림 3>와 같다. 전체적으로 재킷 착용시 선호하는 맞음새는 몸에 비해 작게 착용하거나 꼭 맞게 착용하는 경우가 55.0%였으며 넉넉하게 착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모두 몸에 꼭 맞게 입는다 46.0%, 54.0%, 약간 여유있게 입는다 41.0%, 44.0%의 순이며, 20대는 몸에 비해 약간 작게 입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2.5%로 나타나 20대가 30대에 비해 더 작은 맞음새를 선호하였다. 석혜정, 김인숙(2003)의 연구에서 맞음새 선호 경향이 비만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대 비만여성은 다른 집단의 연령대에 비해 여유분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 여유분이 많은 넉넉한 맞음새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몸에 피트한 실루엣의 유행 경향을 반영하여 여유분을 많이 주기보다는 디자인 요소, 패턴의 절개선 등을 이용하여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착용시 추구이미지

연령에 따른 재킷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는 <표 4>와 같다. 전체의 40.2%가 재킷을 착용함으로써 세련되어 보이기를 원했고, 37.8%가 현재보다 날씬해 보이기를 원했고, 11.0%가 유행에 적합해 보이기를 원하였다. 연령별 추구 이미지의 유의값이 0.01 수준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53.1%가 현재보다 날씬하게 보이기를 원했고 30대는 50.0%가 세련되어 보이기를 가장 원하였다. 또, 20대는 유행에 적합해 보이는 것도 중시하는 반면 30대는 유행보다는 자신이 세련되고 품위있어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그림 2> 연령별 재킷의 이상적 사이즈



<그림 3> 연령별 재킷 착용시 선호맞음세

<표 4> 연령별 재킷 착용시 추구이미지

(단위: 명(%))

| 내 용       | 20대       | 30대       | 전 체       | $\chi^2$<br><br>14.367** |
|-----------|-----------|-----------|-----------|--------------------------|
| 현재보다 낫선하게 | 17( 53.1) | 14( 28.0) | 31( 37.8) |                          |
| 세련되게      | 8( 25.0)  | 25( 50.0) | 33( 40.2) |                          |
| 유행에 적합하게  | 4( 12.5)  | 1( 2.0)   | 5( 6.1)   |                          |
| 품위있게      | 1( 3.1)   | 8( 16.0)  | 9( 11.0)  |                          |
| 귀엽게       | 1( 3.1)   | 0( 0.0)   | 1( 1.2)   |                          |
| 기 타       | 1( 3.1)   | 2( 4.0)   | 3( 3.7)   |                          |
| 계         | 32(100.0) | 50(100.0) | 82(100.0) |                          |

\*\*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희(2007)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세련되고 우아하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원하는 결과를 지지한다.

5) 재킷 구입현황

재킷을 구입하는 장소와 구입시 선택기준에 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입하는 장소는 20대는 인터넷 쇼핑몰(37.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백화점, 할인점/이올렛의 순이며, 30대는 백화점(46.0%), 할인점/이올렛, 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연령에 따른 구입 장소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진숙, 이정란(2008)의 연구에서 20대 비만여성은 좀 더 저렴하고 유행에 적합한 패션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므로 30대와 의복 구매장소가 다르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재킷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20~30대 모두 디자인으로 각각 43.8%, 48.0%이고 다음으로 치수만족도 40.6%, 20.0%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진숙,

이정란(2008)의 선행연구에서 20~30대 비만여성이 치수 및 맞음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다음으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비만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자신에게 맞는 의복을 찾기 힘들었으므로 의복 구입시 치수 및 맞음새를 우선 고려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전문적인 Plus-size 의류시장의 확대로 디자인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재킷의 치수만족도

재킷의 치수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현아(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킷의 부위별 맞음새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문용 구성하였으며 ‘매우 안 맞는다(1)’에서 ‘매우 잘 맞는다(5)’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매우 안 맞는다’와 ‘안 맞는다’의 두 항목을 묶어 ‘안 맞는다’로 명명하였고 ‘매우 잘 맞는다’와 ‘잘 맞는

<표 5> 연령별 재킷 구입현황

(단위: 명(%))

| 특 성  | 구 분        | 20대       | 30대       | 전 체       | $\chi^2$ |
|------|------------|-----------|-----------|-----------|----------|
| 구입장소 | 백화점        | 9( 28.2)  | 23( 46.0) | 32( 39.0) | 14.326*  |
|      | 전문 대리점     | 1( 3.1)   | 2( 4.0)   | 3( 3.6)   |          |
|      | 할인점/아울렛    | 5( 15.6)  | 12( 24.0) | 17( 20.7) |          |
|      | 맞춤점        | 0( 0.0)   | 1( 2.0)   | 1( 1.2)   |          |
|      | 대형패션쇼핑몰    | 1( 3.1)   | 3( 6.0)   | 4( 4.8)   |          |
|      | 대형할인마트     | 0( 0.0)   | 3( 6.0)   | 3( 3.6)   |          |
|      | 보세 옷가게     | 3( 9.4)   | 1( 2.0)   | 4( 4.8)   |          |
|      | 인터넷 쇼핑몰    | 12( 37.5) | 5( 10.0)  | 17( 20.7) |          |
| 선택기준 | 치수 및 맞춤새   | 13( 40.6) | 10( 20.0) | 21( 28.0) | 11.571   |
|      | 디자인        | 14( 43.8) | 24( 48.0) | 38( 46.3) |          |
|      | 색 상        | 0( 0.0)   | 1( 2.0)   | 1( 1.2)   |          |
|      | 소재/옷감      | 0( 0.0)   | 2( 4.0)   | 2( 2.4)   |          |
|      | 가 격        | 2( 6.3)   | 3( 6.0)   | 5( 6.1)   |          |
|      | 브랜드 유명도    | 0( 0.0)   | 1( 2.0)   | 1( 1.2)   |          |
|      | 나의 체형과의 조화 | 2( 6.3)   | 8( 16.0)  | 12( 12.4) |          |
|      | 다른 옷과의 조화  | 1( 3.1)   | 1( 2.0)   | 2( 2.4)   |          |
| 계    | 32(100.0)  | 50(100.0) | 82(100.0) |           |          |

\* $p \leq .05$

<표 6> 재킷의 신체부위별 치수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 잘 맞는다    | 보통이다     | 안 맞는다    | 안 맞는 이유  |          |
|------|----------|----------|----------|----------|----------|
|      |          |          |          | 크다/길다    | 작다/짧다    |
| 목둘레  | 45(54.9) | 36(43.9) | 1( 1.2)  | 1( 1.2)  | 0( 0.0)  |
| 가슴둘레 | 16(19.5) | 30(36.6) | 36(43.9) | 3( 3.7)  | 33(40.2) |
| 허리둘레 | 16(19.5) | 39(47.6) | 27(32.9) | 4( 4.9)  | 23(28.0) |
| 어깨너비 | 26(31.7) | 32(39.0) | 24(29.2) | 10(12.0) | 14(17.1) |
| 재킷길이 | 21(25.6) | 44(53.7) | 17(20.7) | 10(12.2) | 7( 8.5)  |
| 소매길이 | 19(23.1) | 33(40.2) | 30(36.6) | 19(23.2) | 11(13.4) |
| 진동둘레 | 12(14.6) | 47(57.3) | 23(28.0) | 6( 7.3)  | 17(20.7) |
| 소매통  | 12(14.6) | 49(59.8) | 21(25.7) | 4( 4.9)  | 17(20.7) |

다'의 두 항목을 묶어 '잘 맞는다'로 명명하였다. 만약 잘 맞지 않는 경우 큰지, 작은지를 체크하여 불만족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0~30대 비만여성의 재킷의 신체부위별 치수만족도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령별로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가장 안 맞는 항목은 가슴둘레(43.9%)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길이가 36.6%, 허리둘레가 32.9%, 어깨너비 29.2%, 진동둘레 28.0%, 소매통 25.7%의 순이었다. 또, 가슴둘레가 맞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작아서 맞지 않다고 한 경우가 40.2%, 허리둘레가 맞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작아서 맞지 않다고 한 경우가 28.0%로 나타났다. 소매부위가 맞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소매길이는 길어서 맞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3.3%이고, 소매통이 작아서 맞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로 나타나 재킷의 소매길이는 길고 소매통은 대부분 작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의 둘레항목과 어깨너비, 소매통은 모두 작아서 안 맞는다고 응답하였고 소매길이, 재킷길이 등은 모두 커서 안맞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복 브랜드에서 큰 치수를 생산할 때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의 편

차를 함께 등간적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 실제 비만 여성의 길이부위의 인체치수보다도 제품의 길이치수가 더 크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치수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만여성의 의복 제작 시에는 단순히 길이와 둘레항목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형별로 심미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패턴부위별 여유량을 산출하여 원형을 제작하

여야 한다.

4. Plus-size 브랜드별 호칭 및 상세치수

비만여성을 위한 Plus-size를 전문으로 하는 각 업체의 기성복 재킷 호칭 및 부위별 치수정보는 <표 7> 과 같다. 업체마다 3~7개의 사이즈 체계를 가지고 있

<표 7> 업체 간 제품의 호칭과 부위별 치수정보

(단위: cm)

|     | 호 칭          | 가슴둘레 | 허리둘레 | 엉덩이둘레 | 어깨너비 | 소매길이 | 소매둘레 |
|-----|--------------|------|------|-------|------|------|------|
| A   | 88           | 100  | -    | -     | 37   | 62   | 36   |
|     | 99           | 105  | -    | -     | 39   | 62   | 36   |
|     | 100          | 110  | -    | -     | 41   | 64   | 38   |
|     | 110          | 115  | -    | -     | 43   | 64   | 38   |
|     | 120          | 120  | -    | -     | 45   | 64   | 38   |
|     | 편 차          | 5    | -    | -     | 2    | 0~2  | 0~2  |
| B   | 77           | 92   | -    | -     | 36   | 61   | 31   |
|     | 88           | 98   | -    | -     | 37   | 61   | 32   |
|     | 99           | 104  | -    | -     | 38   | 62   | 33   |
|     | 100          | 110  | -    | -     | 39   | 62   | 34   |
|     | 110          | 116  | -    | -     | 40   | 63   | 35   |
|     | 120          | 122  | -    | -     | 41   | 63   | 36   |
| 편 차 | 6            | -    | -    | 1     | 0~1  | 1    |      |
| C   | 77           | 98   | -    | -     | 37   | 61   | 35   |
|     | 88           | 104  | -    | -     | 38   | 62   | 37   |
|     | 99           | 109  | -    | -     | 39   | 62   | 38   |
|     | 100          | 114  | -    | -     | 39   | 63   | 39   |
|     | 110          | 119  | -    | -     | 40   | 63   | 40   |
|     | 120          | 124  | -    | -     | 40   | 64   | 41   |
|     | 130          | 129  | -    | -     | 41   | 64   | 42   |
| 편 차 | 5~6          | -    | -    | 0~1   | 0~1  | 1~2  |      |
| D   | L(77,88)     | 100  | -    | -     | 39   | 61   | 36   |
|     | XL(99,100)   | 110  | -    | -     | 41   | 62   | 38   |
|     | XXL(110,120) | 120  | -    | -     | 43   | 62   | 40   |
|     | 편 차          | 10   | -    | -     | 2    | 0~1  | 2    |
| E   | 1P           | 98   | 82   | 103   | -    | -    | -    |
|     | 3P           | 103  | 87   | 108   | -    | -    | -    |
|     | 5P           | 108  | 92   | 113   | -    | -    | -    |
|     | 7P           | 113  | 97   | 118   | -    | -    | -    |
|     | 9P           | 118  | 102  | 123   | -    | -    | -    |
|     | 11P          | 123  | 107  | 128   | -    | -    | -    |
|     | 편 차          | 5    | 5    | 5     | -    | -    | -    |

비어있는 칸은 업체에 따라 관찰되지 않은 구간을 의미함.



으며 그 호칭 표기도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2009)에서 규정한 정장 재킷의 호칭 표기방법인 ‘가슴둘레-영덩이둘레-키’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개 업체도 없었고 업체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호칭을 표기하고 또, 부위별로 제공하는 치수정보도 업체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한다.

99사이즈를 기준으로 각 업체의 치수를 비교해보면 동종 디자인 유사 소재의 베이직 스타일의 원버튼 테일러드 재킷이지만, 업체마다 제공되는 모든 치수가 각각 다르고, 사이즈 편차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길이는 신체치수보다 더 길게 제시하고 있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길어 기성복 재킷의 수선시 소매 길이를 줄인다고 한 연구결과(이희춘, 이원자, 2005)를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긴 길이는 소비자에게 수선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재킷의 경우 둘레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 자신의 몸에 비해 치수를 작게 선택하여 수선 없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재킷의 선호디자인

1) 선호맞음새

연령별로 선호하는 재킷의 맞음새는 <표 8>과 같다.

20~30대 모두 몸에 꼭맞는 형을 각각 53.1%, 58.0%로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보통 여유량, 넉넉한 형의 순이었다. 연령에 관계없이 몸에 꼭 맞는 맞음새를 선호하였으나 넉넉한 맞음새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피트한 유행 현상이 비만여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선호길이




연령별로 선호하는 재킷의 길이는 <표 9>와 같다. 재킷의 길이에서는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20대는 미들힙~영덩이길이 53.1%, 허리~미들힙 사이 25.0%, 영덩이 덮는 길이 21.9%의 순이고 30대는 미들힙~영덩이길이 74.0%, 영덩이 덮는 길이 22.0%, 허리~미들힙 사이 4.0%의 순이었다. 20대, 30대 모두 미들힙~영덩이길이의 중간 정도의 재킷길이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류숙희, 박종희(2005)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에 따른 재킷의 길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키가 작고 비만한 체형일수록 허리둘레선에서 15cm 내외 내려간 재킷 길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3) 선호라펠길이

연령별로 선호하는 재킷의 라펠길이는 <표 10>과 같다. 20대는 단추 1개의 긴 형 56.3%, 단추 2개의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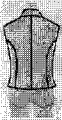


<표 8> 연령별 선호맞음새

(단위: 명(%))

| 맞음새 |     |  |  |  | 전 체       | $\chi^2$ |
|-----|-----|---|---|---|-----------|----------|
| 연 령 | 20대 | 17( 53.1)   | 14( 43.8)   | 1( 3.1)   | 32(100.0) |          |
|     | 30대 | 29( 58.0)   | 18( 36.0)   | 3( 6.0)   | 50(100.0) |          |
| 계   |     | 46( 56.1)   | 32( 39.0)   | 4( 4.9)   | 82(100.0) |          |

<표 9> 연령별 선호길이




(단위: 명(%))

| 재킷 길이 |     |  |  |  | 전 체       | $\chi^2$ |
|-------|-----|---|---|---|-----------|----------|
| 연 령   | 20대 | 8( 25.0)  | 17( 53.1)   | 7( 21.9)  | 32(100.0) |          |
|       | 30대 | 2( 4.0)   | 37( 74.0)   | 11( 22.0)   | 50(100.0) |          |
| 계     |     | 10( 12.1)   | 54( 65.9)   | 18( 22.0)   | 82(100.0) |          |

\*\*p<.01




<표 10> 연령별 선호라펠길이

(단위: 명(%))

| 라펠길이 |     |  |  |  | 전 체       | $\chi^2$ |
|------|-----|---|---|---|-----------|----------|
| 연 령  | 20대 | 0( 0.0)   | 14( 43.7)   | 18( 56.3)   | 32(100.0) | 1.850    |
|      | 30대 | 2( 4.0)   | 25( 50.0)   | 23( 46.0)   | 50(100.0) |          |
| 계    |     | 2( 2.4)   | 39( 47.6)   | 41( 50.0)   | 82(100.0) |          |

<표 11> 연령별 선호라인

(단위: 명(%))

| 라 인 |     |  |  |  | 전 체       | $\chi^2$ |
|-----|-----|---|---|---|-----------|----------|
| 연 령 | 20대 | 14( 43.8)   | 16( 50.0)   | 2( 6.3)   | 32(100.0) | 0.428    |
|     | 30대 | 23( 46.0)   | 25( 50.0)   | 2( 4.0)   | 50(100.0) |          |
| 계   |     | 37( 45.1)   | 41( 50.0)   | 4( 4.9)   | 82(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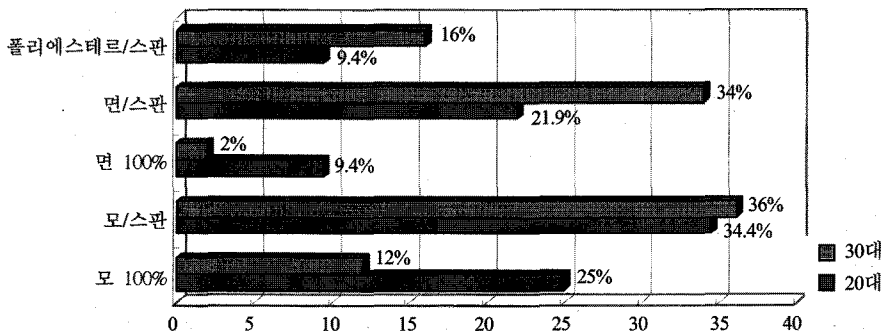
43.7%의 순이고 30대는 단추 2개의 기본형 50.0%, 단추 1개의 긴 형 46.0%, 단추 3개의 짧은 형 4.0%의 순이었다. 선행연구(류숙희, 박종희, 2004)에서도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재킷 라펠길이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라펠의 끝이 허리선에 위치한 긴 형의 재킷이 매력적이고 품위있어 보이며 동시에 선호하였다.

4) 선호라인

연령별로 선호하는 재킷의 길이는 <표 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암홀 프린세스 라인(45.1%)보다 솔더 프린세스 라인(50.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모두 암홀 프린세스 라인보다 솔더 프린세스 라인을 선호하였고 라인이 없는 형태는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

5) 선호소재

선호하는 재킷의 소재는 <그림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스판과 면/스판 혼용의 선호도가 35.3%, 30.5%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모/스판이나 모를 59.4%로 많이 선호하였고 30대의 경우 모/스판, 면/스판이 70%로 스판이 포함된 소재를 많이 선호하였다. 이는 20~30대 비만여성의 경우 중년여성과 달리 재킷의 심미성을 우선시하여 몸이 불편하더라도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선호하므로 여유분이 적은 맞춤새를 선택한 대신 약간의 활동성을 고려한 스판 혼용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20~30대 비만여성의 재킷 패턴 설계시 심미성과 더불어 활동성에서도 만족감을 주는 여유분이 포함된 의복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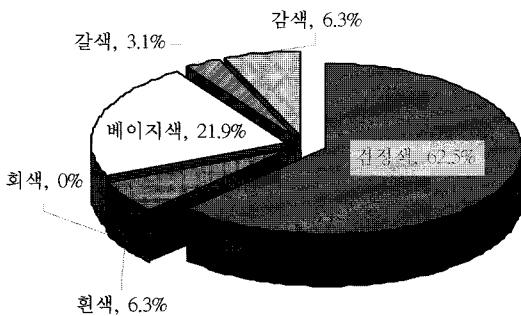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재킷 선호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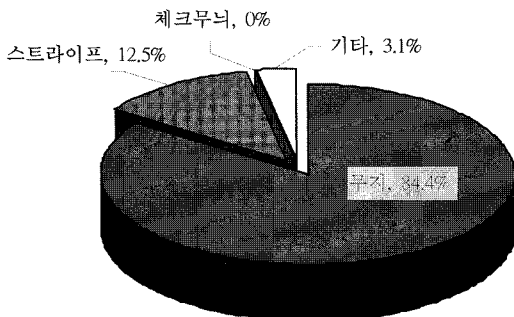
6) 선호색상 및 무늬

선호하는 재킷의 색상 및 무늬는 <그림 5>-<그림 6>과 같다. 연령별로는 유의차가 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색상은 검정색(62.5%)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무늬는 무늬가 없는 무지(84.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색의 무늬가 없는 무지는 비만여성이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고 무난해 보이기를 원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또, 어떠한 하의와도 잘 매치되며 신체가 축소되어 보여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재킷용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조사연구(김숙희, 나미희, 2004)에서 봄, 가을용으로는 그레이 계열, 여름용으로는 화이트 계열의 밝은 색, 겨울용으로는 그레이나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였고, 겨울용으로는 체크무늬, 그 외 계절 모두 무늬가 없는 직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체형의 여대생과는 무늬 선호의 결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색상에서는 비만여성이 계절과 관계없이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형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5> 선호하는 재킷의 색상



<그림 6> 선호하는 재킷의 무늬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성복의 주요 구매자인 20~30대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재킷의 착용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젊은 비만여성이 기성복 착용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관과 맞음새가 좋은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원형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킷 착용실태 결과, 착용횟수는 한 달에 5회 이하가 76.8%로 전체적으로 착용이 적었으나 연령별로는 20대에 비해 30대의 착용이 빈번하였다. 착용이 빈번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이 불편해서, 적합한 사이즈가 없어서의 순이었다. 실제 착용하는 기성복 재킷의 치수는 연령에 관계없이 77 이상을 착용하고 있으나 20대의 31.3%가 66 이하를 착용하고 있었다. 비만체형임에도 작은 사이즈의 착용이 가능한 이유는 재킷은 앞여밈을 열어 착용이 가능한 의복이므로 둘레에 비해 키가 작은 경우 어느 정도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킷 착용시 선호하는 맞음새는 몸에 비해 작게 착용하거나 꼭 맞게 착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5%였다. 과거에는 체형을 커버하기 위해 넉넉한 맞음새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피트니스 유행 현상으로 비만체형이지만 넉넉한 맞음새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킷의 부위별 치수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의 둘레항목에서는 모두 작아서 안 맞는다고 응답하였고 재킷길이, 소매길이 등의 길이항목에서 커서 안맞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복 브랜드에서 큰 치수를 생산할 때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의 편차를 함께 등간격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 실제 비만여성의 길이 부위의 인체치수보다도 제품의 길이치수가 더 크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3. Plus-size 업체의 재킷 호칭 및 부위별 치수정보를 살펴본 결과, 업체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호칭을 표기하고 부위별로 제공하는 치수정보도 업체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99 사이즈를 기준으로 각 업체의 치수를 비교해보면 업체마다 제공되는 모든 치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소매길이는 신체치수보다 더 길게 제시하고 있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길어 소비자에

게 수선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연령별 선호하는 재킷의 맞춤새는 몸에 꼭 맞는 맞춤새를 선호하였고, 재킷의 길이는 미들힙~엉덩이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재킷의 라펠길이는 단추 1~2개의 V-zone이 깊은 형태를 선호하였고, 선호소재는 울/스판 혼용이 가장 높고, 다음은 면/스판 혼용으로 나타나 의복의 외관을 잘 유지하면서도 활동성이 좋은 소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선호하는 색상과 무늬에서 검정색의 무늬를 가장 선호하여 신체가 축소되어 보이며 주위로부터 주목받지 않기를 원했다.

이상의 결과로 젊은 비만여성은 기성복 재킷 착용시 활동성과 기능성을 배제하고 단지 유행과 날씬해 보이기 위해 자신의 몸보다 작거나 꼭 맞는 치수와 맞춤새를 착용하고 있어 기성복 재킷 치수선택과 만족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후속의 연구에서는 젊은 비만여성을 위한 선호 맞춤새와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외관과 맞춤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재킷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30대 비만여성의 조사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연경, 손희순. (2008). 중국여성의 테일러드 수트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상해지역 25~34세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2), 117-13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3. 29). 건강검진 수검자 3명 중 1명 비만. *국민보험공단*. 자료검색일 2010, 4. 11, 자료출처 <http://www.nhic.or.kr>
- 권수애, 김인화. (2002).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보정법.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2), 166-181.
- 기술표준원. (2009, 12. 18). KS 성인 여성복 치수 KS S 0051.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자료검색일 2010, 5. 30, 자료출처 <http://www.standard.go.kr>
- 김정호, 임성건. (2006). 대학생들의 비만인에 대한 인식.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006(0), 242-243.
- 김인화. (2002).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개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화, 권수애. (2007). 중년여성용 재킷 패턴의 외관과 기능성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31(11), 1621-1633.
- 김현아. (2007). *비만여성을 위한 의복 치수체계 연구-20~30대 여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숙, 나미희. (2004). 재킷용 의복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105-113.
- 류숙희, 박종희. (2004).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칼라형태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67-376.
- 류숙희, 박종희. (2005).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재킷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211-217.
- 류영숙. (2002). *중년여성의 자켓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 (1998). *성인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 착용스타일-비만수준과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해정, 김인숙. (2003). 성인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선호경향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9), 17-29.
- 손부현. (2008). 중년비만여성용 재킷 패턴의 여유량 분포에 따른 착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7(3), 469-483.
- 손부현, 홍경희, 박세진. (2005). 중년기 비만여성을 위한 기존 재킷의 패턴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75-483.
- 윤혜준. (2008). *비만여성의 체형별 Plus-size 재킷 패턴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희. (2007). 체형과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중년여성과 여대생의 비교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1084-1099.
- 이진숙, 이정란. (2008). 20~30대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4), 88-98.
- 이희춘, 이원자. (2005). 여성복 업체의 재킷 치수체계와 소비자 치수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3), 27-38.
- 정동림. (2002). *Plus-size 여성체형을 위한 재킷 원형 개발 및 면 분할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회정. (2009). 온라인 쇼핑몰의 플러스 사이즈 여성 정장 재킷 사이즈 실태분석. *복식문화연구*, 17(2), 203-215.
- Size Korea. (2004).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10, 4. 17, 자료출처 <http://www.sizekorea.kats.go.kr>